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유물 한 점뿐... 정부, 뭐 했나”

야권 의원들, 현지 방문 후 기자회견...“한국이 요구한 전시물 부실” 성토
“한국 협상 책임자 사도에 한 번도 방문 안해...정부 방관, 국회 차원 추적”

일본이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요구한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임미애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9일 “지난 15~17일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을 방문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사도 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 내용 전시 공간에 유물이 없다고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나무 도시락’ 한 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제 동원 내용이 전시된 아이키와 향토박물관 규모부터 작은 데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전시장은 뼈격대는 계단을 올라 3층 구석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본 측에 ‘조선인 강제동원 진실 적시’

‘강제동원 전시장소 이전’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 공개’ 등 3가지를 요구하겠다고 일본 외교당국 관계자와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의원들은 대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일본 외교당국에 공식 외교 경로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한국 측 협상 책임자가 사도섬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근대화·산업화 시절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속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간 역사 전쟁이 일본 의도대로 가는 상황에 한국 정부는 사실상 공모하고 있는 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간)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둘러보고 있다. <진보당 제공>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유임

신임 전략기획위원장 천준호...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안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당 사무총장에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을 다시 선임했다. 3선인 김 사무총장과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임명했던 의원들이며 이 대표의 재임 이후 유임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

가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장을 맡은 등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 출신이지만, 이후 당내 활동에서 친명 행보를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만 진 정책위의장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 등을 놓고 이 대표와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일 뿐 이 사안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재선의 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을 임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공천 불복·탈당자 복당 허용 논란

총선 기여도 따라 번복...광주, 음주운전 전력 전 서구청장 등 6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탈당한 이들 중 일부의 복당을 허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헌상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에게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4·10 총선 기여도에 따라 ‘복당 영구 불허’를 손바닥 뒤집듯 했기 때문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복당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최고위 의결로 5명이 복당 허용됐고, 21명이 복당 불허됐다. 또 당무위원회 권한으로 56명이 복

당했고, 1명은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았다. 복당이 허용된 이들 중 광주지역에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대석 전 서구청장, 최기영 북구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당헌 제4조 3항에는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하고 출마한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이들에게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내렸음에도 ‘총선 기여도’에 따라 복당을 재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복당자 중 서 전 정장과 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다가 복당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민주당이 ‘씩씩이’ 한 선거에서 과연 ‘총선 기여도’가 필요한 것이냐는 게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다. 수도권 등 국민의힘과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에서 총선 기여도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복당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공천 불복에 의해 탈당한 자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중앙당에서 총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무위에서 의결 후 복당을 허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어업인 사업소득도 전액 비과세”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

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중요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업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문수 “순천대, 독자적 의대 신설 추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9일 “순천대학교의 독자적인 의과대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남도가 국립 의대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을 시작했지만, 지역과 대학들 간의 입장 차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대안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만큼, 전남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부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장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신중이 있어야 검토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